



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5

[고남 역경]

설명도 하나님의 도구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을 쓴 강영우씨는 14세까지 정상시력을 가졌었다.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어가는 4.5년 동안 약시로 사물을 볼 수 있었으나 여러 번의 수술 실패로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다.

강영우씨는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은 하나님에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역사 하시는 하나님

의 사랑을 믿고, 미국으로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을 갔으며 3년 8개월 만에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학위(피츠버그대학)를 받았다.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영어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것이 의외로 반응이 커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크리스찬헤럴드, 가이드 포스트 등의 잡지에 소개되었다.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었으며, 정상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었다.

본지는 위 글을 피난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피난곳 크리스천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_36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과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주제는 아벨도론의 페일스(Peels)교수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투로 번역된 기본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키나'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열심, 시기, 질투"입니다.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행동을 야기하는 열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열심"이란 의미로 쓰일 때는 중립적이지만 "시기"나 "질투"가 인간에게 쓰일 때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잠 6:34, 14:30, 27:4). 그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오는 경쟁심에서 생긴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자연을 인격화 내지 신격화시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질투하는 하나님"(엘칸나)을 사전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을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혼인과 같은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결함이 있어서 인간처럼 경쟁자를 참지 못하는 질투심이 발동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질투하시고 항상 자신의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돌보시고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질투는 조상의 허물을 자녀에게 안겨주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보장되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속 역사를 이끄는 추진력이 됩니다. 인간의 질투와 달리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파괴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목회산책



누군가의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제 마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과격이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오타나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럴 때면 제 안에서는 작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메시지를 드러 알려드리는 것이 예의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사랑일까.' 생각보다 이 고민의

다. 치밀한 플롯과 보석 같은 단어들의 배치를 보며, 독서의 폭이 좁은 저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 깊이와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강단에 서는 설교자로서 저 또한 그런 완벽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안의 날 선 강박을 단숨에 녹여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쓴 원고를 다시 읽어보는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퇴고하고, 몇 번이나 교정을 거쳐도, 막상 다시 펼쳐본 제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문법의 오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주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진치를 준비하며 고뇌하는 모든 동역자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의 문장은 때로 어긋날지라도, 그 갈라진 틈 사이를 온전하게 매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문투성이일지라도 하

부족한 문장 사이를 매우시는 하나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문법 나치'라고 부르더군요.

타인의 맞춤법이나 오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비꼬는 말이라니, '나치'라는 강한 단어 앞에서 제 마음도 못내 뜨끔해집니다.

사실 글을 쓰는 이에게 적합한 단어와 바른 문법은 성도님들을 향한 귀한 정성이고 예의라 믿어왔기에, 저도 모르게 그 잣대가 스스로와 타인에게 엄격해졌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대가들의 글을 보면 문법 나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

다. 글 속에는 부끄러운 실수들이 여지없이 숨어 있습니다. 1교, 2교를 거치며 치열하게 다듬어도 결국 인간의 한계는 종이 위에 점처럼 남겨지곤 합니다.

그 부끄러운 흔적들을 마주하며 저는 다시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글자의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것일요. 설교자가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었드려 울었던 밤을 생각하면, 설령 문장이 조금 투박하고 비문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문법보다 깊은 '생명의 언어'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로 이루어주시듯, 저 또한 이제는 매끄러운 문장보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성을 먼저 읽어내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진 일 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론,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_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인생 : 흥해, 수르, 마라, 엘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갔던 네 곳의 지명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첫째는 '흥해'이다. 앞으로 넘실거리는 흥해. 뒤에는 분노한 애굽군이 추격해오는 진퇴양난 속에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크리스천은 이런 감격적인 '흥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흥해를 건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맞닥뜨린 곳이 '수르'('벽'이라는 뜻)광야였다. 애굽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동방 종족들의 외침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방어용 장벽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 없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통의 수르 광야가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준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 '마라'에 물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쓴다. 마시면 구역질이 나고

갈증이 더 심해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놓았다. 우리도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세에게 배워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모세가 던지자 쓴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물 샘 열두 개와 종려나무 칠십 그루가 있었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 우리의 인생이 치열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엘림에서는 쉬어야 한다.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될 수 있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우리가 갈 천국에서 엘림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과 같음을 배우도록 도와주소서.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윤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신교회) 하소서' (골3:49) •주일오전 1부 9:00 2부 9:30 3부 10:00 •주일오후 3:00 •수요강연회 7:30 •금요기도회 9:00 담임 장영식 목사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천길 60(가동) (대표전화 : 064-1217 FAX: 062375-568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4부 11:00 3부 오후 1:00 •수요강연회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담임 리종민 목사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북로170번길 (원동산) (대표전화 367-1004 FAX: 361-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성령께서 이끄시는대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4:19) •주일오전 1부 8:00 2부 9:30 3부 11:30 •수요강연회 오후 2:00 •새벽예배(새벽-영)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임종갑 목사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모동대길 34(일제동) (대표전화 : 062372-9999 / FAX: 062372-9999)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표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55:7, 에베소서4:32)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남택복 목사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봉곡로 120번길 7 (대표전화 : 062653-6161)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표어: THE 미라클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금요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20 담임 정종훈 목사 담임 이근태 목사 61013 광주광역시 북구 임원로(대교) 1008-3 (대표전화 : 062391-1191, 1291 FAX: 062395-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할 형제자매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00 •주일오후 3:00 •수요강연회 7:30 •금요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이창호 목사 담임 최정환 목사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18(원동산) 209-165 (전화 : 062372-1004, FAX : 06237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표어: 복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주일오전 1부 7:30 2부 9:30 3부 11:30 •주일예배 1부 7:30 2부 9:3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금요기도회 9:00 담임 김요한 목사 62025 광주광역시 사구 영회로 31번길 7(가동) 417 (대표전화 : 062375-0400 FAX: 062375-6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사랑교회 표어: 성령께서 이끄시는대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4:19)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3: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리종민 목사 622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창대교 95번길 36 (대표전화 : 062375-8800 FAX: 062375-8808)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표어: 다시 복있는 자가 되라(사12:1) 1. 대제사장 2. 성도회 3. 사랑의 집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형성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영로 11(번영길) 24 (대표전화 : 062 951-9691 FAX : 062 951-969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표어: 오순절은 광복을 내일은 세계를! (행13)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희철 목사 62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영로 10번길 22 (대표전화 : 062361-5004, 956-1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입면교회 표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55:7, 에베소서4:32)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영철 목사 57513 전남 곡성군 입면 마당마당길 21-2 (대표전화 : 061-362-6010)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표어: 은혜위에 은혜의 삶(요14)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금요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변희석 목사 광주광역시 북구 송곡로 10-15 (가동) 814-7 (TEL. 062374-1096, 010-6617-1096)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 표어: 금년에 우리모두 주의 은혜로 기쁨을 만끽하여 넘시다 (골3:16) •주일오전 1부 7:30 2부 9:30 3부 11:10 4부 12:50 •주일오후 2:30 •수요강연회 7:00 담임 임종택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정천길 76-12 (대표전화 : 062391-9999 FAX: 062392-5304)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창교회 표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30 •수요강연회 7:00 담임 김승원 목사 62287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룡반촌길 29(신창동) (대표전화 : 062393-537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광주광명교회 50주년 주님의 은혜의 복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고석환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용안로 43 (대표전화 : 062366-3058, FAX: 062369-3058)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표어: '빛과 소금'이라는 하나님 을 사랑하는교회(마18:1-5) •주일오전 1부 8: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사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영로11번길 47 (대표전화 : 062393-4620,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주교회 표어: '이런 영광보다 더 큰 교회' (막 2:8)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후 7:00 •수요강연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규성 목사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목림로 99번길 10 (대표전화 : 062395-7004, 070-7572-9082 FAX: 062395-7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다 •주일예배 11:00 •수요강연회 7:00 •금요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30 담임 박영철 목사 나주 봉황면 죽곡길 2(봉황초교) bbs-1221@nmail.net (전화 : 010-8632-1033(박영철 목사))